

아버지 브라마가 자녀들에게 가진 소망 한 가지

오늘 밥다다는 봉사, 기억, 아버지와 대등해지는 데 대한 자녀들 모두의 차트를 보고 있었다. 너희는 이제까지 밥다다에게서 보물을 참으로 많이 받았다. 너희는 아버지를 무체의 형태와 미묘한 형태에서 육신의 형태로 불러냈고, 너희에 대한 사랑에서 밥다다는 자녀인 너희들의 사랑의 부름에 응했고 만남을 축하했다. 그러니 그 결과로서 너희 자녀들 모두 어떤 과일이 되었느냐? 너희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결실이 되었느냐? 너희는 계절 과일이 되었느냐? 너희는 단지 형태뿐인 과일이 되었느냐, 아니면 형태로만 달콤함을 가진 과일이 되었느냐? 너희는 직접적인 부양의 과일이 되었느냐, 즉 나무에 달린 채로 익은 과실이 되었느냐? 또는 덜 익은 과일이면서 한두 가지의 특질이라는 화학물질들을 바탕으로 알록달록한 색을 갖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느냐? 또는 아직 덜 익은 과일이나? 바바는 너희 자녀들의 그러한 차트들을 보고 있었다. 합류시대의 특별함에 따라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결실의 시기인 지금의 때에 따라서, 모든 과목과 모든 발걸음에서 즉각적인 결실을 주는 이들이며 모든 행위마다 즉각적인 결실을 먹는 자인 너희들은 색깔, 아름다움, 달콤함 세 가지가 전부 다 완전한,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한 열매가 되어야 하는데, 너희는 아버지의 부양으로 이미 잘 익었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 스스로 자문해봐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끊임없는 동반 (상)의 색 (량)을 가지는 데서, 아버지를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아버지 브라마와 한결같이 대등한 형태를 가지는 데서, 또 모든 성취의 행복을 가지는 데서, 아버지와 대등해졌는가? 오늘날 아버지 브라마는 브라민 자녀들이 어느 정도로나 완전하고 대등해졌는지를 특히 계속해서 보고 있다. 그는 특별한 자녀들 모두의 형상과 활동들을 줄곧 그의 앞에 두고 그들이 어느 정도로나 대등해졌는지를 끊임없이 보고 있다. 누가 염주의 구슬들이 되었고, 자기 등수의 자리에 놓인 자들의 수는 얼마나 되느냐? 이 측면에서 결과를 보며 아버지 브라마는 특별히, “브라민 영혼은 모든 행위에서 밥다다를 드러내는 이라는 뜻이다” 라고 말했다. 너희는 행위라는 연필을 가지고 모든 영혼의 가슴과 지각에 아버지의 형상과 형태를 그리는 영적인 예술가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아버지 브라마는 이번 시즌의 자녀들의 결과에 대해서 바램을 하나 갖고 있다. 그가 어떤 바램을 가졌겠느냐? 아버지는 한결같이 모든 자녀가 각자의 행위라는 거울을 통해서 아버지의 비전을 주기, 즉 자녀가 매 발걸음마다 아버지를 따르며 아버지와 대등한 미묘한 천사가 되어 카르마 요기의 배역을 연기하기를 소망한다. 이 소망을 이루기가 어려우냐, 쉬우냐? 초창기부터 아버지 브라마는 항상 “즉각적인 기부가 위대한 자선”이라는 산스카르를 실제 형태로 옮겼다. 너희는 그에게서 “그 일을 하겠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겠다, 나중에 계획을 세우겠다” 라고 하는 산스카르를 실제로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을 감안할 때 그는 브라민 자녀들에 대해 어떤 소망을 가지겠느냐? 자녀들이 그와 대등해지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우선 먼저 밥다다는 마두반에서 온 자들을 앞세운다. 너희는 앞에 있지 않느냐? 모든 이가 전체 모든 본보기들 중에서 최고의 본보기를 어디서 보느냐? 전체 모든 진열장 중에서 마두반이 최대의 진열장 아니냐? 이 나라와 외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려고 마두반에 오지 않느냐? 그래서 마두반은 제일 큰 진열장이다. 그런 진열장 안에 놓인 진열품들은 참으로 귀중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밥다다를 만나려고 여기에 온 것 뿐 아니라 가족의 실제 형태를 보기 위해서도 여기에 왔다. 누가 너희에게 그런 형태들을 보여주겠느냐? 가족의 실제 본보기들, 카르마 요기로서의 실제적인 본보기, 피로한 줄 모르는 봉사자들로서의 실제적인 본보기이며 축복의 화신으로서의 형태를 가진 실제적인 본보기는 누구냐? 마두반의 주민들 아니냐?

제일 중요한 것에 귀 기울이는 일의 크나큰 중요성이 바가와드에 강조되어 있는데, 바가와드

전체를 통틀어 그렇게 중요성이 큰 것은 없다. 이처럼 신성한 활동의 나라 인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너희 브라민들이 아니냐? 너희들의 중요성을 기억할 테지? 마두반 거주자들이 기억의 화신이 되려면 노력이 드느냐, 아니면 쉬우냐? 마두반은 백성들과 왕들, 양쪽 모두에 축복을 주는 곳이다.

오늘날에는 심지어 백성 영혼들까지도 축복에 대한 권리를 차지하고 나서 돌아가고 있다. 백성들도 축복을 차지하고 있으니 축복의 땅에 사는 영혼들이 축복으로 얼마나 가득할지 상상해 봐라! 현재의 때에 따라 온 사방에서 권리를 차지하려고 온갖 유형의 백성들이 여기에 오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협조하는 영혼들의 수, 그리고 연결을 가진 영혼들의 수가 늘고 있다. 백성들의 계절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왕들은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왕의 왕관이 때로는 너희의 머리에 맞고, 다른 때는 안 맞느냐? 왕관은 옥좌에 등극한 자들에게만 씌울 수 있다. 옥좌에 앉혀지지 않은 자들에게는 왕관이 맞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낸다. 이렇게 기분이 상하는 것은 너희가 옥좌에 안정해 앉아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다. 사람들뿐 아니라 심지어 자연도 옥좌에 앉혀진 영혼들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없다. 마야의 이름이나 흔적도 없다. 이처럼 너희는 그렇게 옥좌에 앉혀져서 왕관을 쓴 영혼들이고 축복의 공여자들 아니냐? 너희는 마두반에 있는 브라민들의 중요성을 이해하느냐? 앗차. 오늘은 마두반 거주자들의 차례다. 나머지들은 모두 회랑에 앉아있다. 너희에게는 아주 좋은 자리가 주어졌다. 앗차.

본래의 보석인 너희들은 원래 너희의 무대에 오지 않았느냐? 너희는 중간을 잊지 않았느냐? 너희는 손에 쥐고 있던 가지들 등을 다 놓아버리지 않았느냐? 본래의 보석인 너희들은 모두 날아다니는 새로서 돌아가지 않겠느냐? 황금 사슴을 뒤쫓지 마라. 어떤 유형의 이끌림에 의해서도 내려오지 마라. 너희들의 지각이라는 발을 흔들려고 어떤 유형의 상황이 오든지 한결같이 흔들림 없고 부동하게, 애착의 파괴자이며 겸손하게 지내라, 오직 그제야 너희가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남들도 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너희는 변함없이 초연한 상태에 머물며 아버지를 사랑할 것이다. 어떤 존재, 어떤 한정된 성취도 사랑하지 마라. 지식이 많은 기야니 영혼들 앞에 황금 사슴으로 오는 것이 바로 그런 한정된 성취들이다. 그러므로 오 본래의 보석들아, 변함없이 첫째 아버지, 아디 피타처럼 무체이며 악덕 없고 에고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어라. 이해하느냐? 앗차.

모든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의 실제 형태를 드러내는 자비로운 영혼들에게, 모든 행위로 아버지 브라마를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 앞에서 예술가가 되어 아버지의 그림을 보여주는 자들에게, 아버지 브라마와 대등한 고귀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마하라티들이 세운 봉사계획들 중에 특히 청년들을 위한 계획들이 있지 않았느냐? 너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전에, 청년 부문은 정부 앞에 그들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생각으로 움직여왔고, 너희들이 현장에 나오고 있으니 항상 한 가지에 주의해라, 즉 말은 더 적게 하고 행동을 더 많이 해라.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말고 너희는 그들에게 실제로 보여줘야 한다. 무대 위에서 행위에 대한 강의를 해라. 입으로 강연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한다면 정치가들에게 배워라! 그러나 영적인 청년 부문은 단지 입으로만 강연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의 눈, 이마, 행위는 강연의 도구가 된다. 어느 누구도 행위로는 강연을 할 수 없지만, 말로 강연하는 사람들은 많다. 행위는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다. 행위는 영성을 증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청년 부문은 변함없는 성공을 위해서 영적인 부적을 늘 지니고 다녀야 한다. 그게 무엇이겠느냐?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 존중받는 길이다. 존중해주는 이 기록이 불멸하는 성공의 기록이 될 것이다. 청년 부문은 끊임없이 “당신 먼저!”라는 한 가지 만트라만 입에 달고 있다. 이 위대한 만트라를 너희 마음속에 확고하게 만들어라. 입으로는 “당신 먼저”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먼저”라 하는 것이 아니다. 말로는 “당신 먼저”라 하지만 마음으로는 느끼지 않는, 그렇게 영리한 자녀들이 일부 있다. 너희가 “내가 먼저”를 정확하게 끝내고 남들을 앞서게 만들면서 너희도 이 위대한 만트라를 갖고 발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너희는 계속 성공을 달성할 것이다. 이해하느냐? 이 만트라와 행운의 부적을 한결같이 늘 지니고 다닌다면 그 경우엔 계시의 복이 올릴 것이다. 앗차.

계획들은 아주 좋지만 너희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지각으로 계획을 실제 형태로 옮겨야 한다. 너희가 봉사를 할지 몰라도 반드시 지식도 역시 드러내라. 세상 사람들 역시 모두, “평화, 평화” 하지만 그들은 평화롭지 못함과 평화를 뒤섞는다. 겉보기엔 모든 이가 다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구호를 읊조리고 있다. 심지어 평화롭지 못한 자들까지도 평화의 구호를 읊조린다. 평화는 필요한데, 그러나 너희들의 무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환경에 따라서 말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의 권위를 갖고 말해라. 너희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때 당시엔 그래도 괜찮았다. 하지만 이젠 땅이 준비되었으니 지식의 씨앗을 뿌려라. 그런 주제들을 다뤄라. 대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로 바꾼다. 그러나 어차피 흥미를 가진 자들만 오게 해라. 멜라, 국제회의, 세미나 등등이 참으로 많았는데 너희는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주제를 정해왔다.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가 은밀한 상태로 머물렀느냐? 이젠 드러나라! 일어난 일들은 뭐든 때에 따라서 일어났다. 이제 너희의 무대 위에서 신의 폭탄을 통해서 그들이 너희가 하고 있는 말을 향해 최소한 고개를 돌리게 해라!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은 단지 너희가 아주 좋은 얘기를 했다는 말만 한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것으로 남고 그들은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최소한 약간의 동요만이라도 일으켜라. 각자에게는 그 사람 고유의 권리가 있다. 권위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요점을 알려줘라, 그러면 어느 누구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많은 장소에서 너희들의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데서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그들은 믿는다. 너희는 무슨 방법을 쓸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단지 권위만 있게 하지 말고 사랑과 권위가 함께 있게 해라. 밥다다가 항상 이르듯이, 화살을 쏘고 나서 그들을 주물러주기도 해라. 많이 존중해주고 너희의 진실도 역시 증명해라. 너희는 신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기분 상할 자들은 그림만 봐도 기분 나빠질 테니 그 경우 너희가 뭘 하겠느냐? 너희가 그림들을 없애지는 않을 테지? 사카르 형태가 권위와 도취감을 가진 누구 앞에서든 말을 하면 그 영향력이 어떠했느냐? 전쟁이 벌어진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느냐? 너희들은 강의하는 이 방법을 배우지 않았느냐? 지식을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너희들은 배우지 않았느냐? 이제는 이것을 공부해라. 너희는 세상의 관점에서 너희들 스스로를 바꿨고 너희 언어도 바꿨다.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너희들 스스로를 바꿀 수 있었을 진대 실제 형태로 너희가 성취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방식으로 너희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계속하겠느냐?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그들이 말할 때 너희들은 행복해한다. 궁극적으로는 오직 이것만이 진정한 지식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해방과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이를 통해서 뿐이다. 이 지식 없이는 해방도 구원도 없다. 지금 사람들은 요가 캠프에 참여하고 나서는 가버린다. 밖에 나가면 그들은 신이 편재한다는 똑같은 그 소리를 한다. 그들이 비록 여기서는 요가를 무척 즐겼다는 말을 하지만 그들의 기반은 변하지 않았다. 너희의 힘을 바탕으로 그들은 변할 수 있지만 그들 스스로 강력해하지는 않는다. 일어난 일은 뭐든 역시 반드시 필요했다. 이것은 불모지가 된 땅을 일구어 비옥하게 만드는 유일하게 옳은 방법이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삭티들이 그들의 삭티 형태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들은 사랑의 형태로 왔지만 이들은 삭티들이고 그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아니요”가 “네”가 되도록 마음과 지각을 변형시키는 말이다. 이 형태도 역시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라!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라. 그들은 왔다가 행복해하며 돌아간다. 그러한 휴식과 위안을 누리고 엄청난 사랑과 환대를 받은 자들은 틀림없이 충족되어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삭티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아버지

브라마는 모든 전시회에서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었다. 그것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있었느냐? 언급된 것들은 화살과 같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질문 양식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예’ 또는 ‘아니요’로 적으시오”. 너희는 그들이 양식에 작성해서 적게 하곤 했었다. 그러니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양식에 그냥 그렇게 적게 하는 것이었느냐?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여부를 그들이 재빨리 말하게 만드는 것 뿐이냐?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설명해주고 나서 그들에게 설문지에 답을 해달라고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들은 정확하게 설문지를 채울 것이다. 너희는 그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한다. 너희들끼리 상의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권위가 있고 사랑도 역시 있게, 존중이 있고, 진실도 역시 드러나게 해라. 너희가 그냥 그렇게 누군가를 모욕하지는 않겠지? 그들이 너희의 가지라는 것과 그들이 여기서 나왔다는 것을 너희들은 안다. 그들에게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 너희들의 의무다. 나이가 적은 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너희들의 관습이다. 앗차.

Blessing: 친절함을 훈습하는 공여자 마스터가 되어 모든 이의 문제를 끝내라.
누가 너희와 연결이 되든, 그들이 어떤 유형의 산스카르를 가졌든, 그들이 맞서거나, 부딪치는 성질이거나, 화를 내며 너희에게 반대하더라도 너희들의 친절한 감정은 여러 생 동안 쌓인 그들의 억센 카르마의 계좌를 1초에 끝낼 것이다. 너희는 그저 기부자인 너희들 본래의 영원한 산스카르가 나오게 하고 친절함을 훈습하면 된다, 그러면 브라민 가족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날 것이다.

Slogan: 너희들의 자비로운 모습과 드리시티로 모든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자비로운 영혼이 되는 것이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